

# 麗代 數詞의 轉寫音 考察

權 在 善

## <內 容>

I. 序

II. 二中曆 數詞의 麗語的 性格

III. 二中曆 數詞의 轉寫音

IV. 鶴林類事 數詞의 轉寫音

V. 結

## I. 序

麗代語 數詞를 傳하는 資料는 혼하지 않다. 朝鮮館譯語를 編纂年代로 보아 鮮初語로 보면 麗代의 數詞의 資料로는 鶴林類事와 二重唇에<sup>1)</sup> 限定된다. 二中曆은 十까지의 語彙뿐이나 鶴林類事는 제법 豐富한 資料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漢音이나 日音으로 轉寫된 資料이다.

本稿에서의 筆者의 關心은 麗代 數詞의 比較考察이라든가 그 語源의 探索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轉寫音의 比較에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들 轉寫音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아가 麗代 音韻과 鶴林類事 漢字音의 性格을 알아 보려는 것이 主된 目的이다. 鶴林類事(1093~1153)와 二中曆(1139)은 年代의 으로 서로 비슷해서 當代의 麗語 音韻이나 漢字音의 考察에 서로 도움을 주리라고 믿는다.

## II. 二中曆 數詞의 麗語的 性格

二中曆은 麗語 資料로 認定되고 있지만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鶴林類事나 그 뒤의 語彙와는 다른 점이 많아 當代의 語彙를 바르게 傳하고 있는지는 確認이 되고 있지 않다.<sup>2)</sup>

1) 二中曆은 日本의 三善爲康이 1139년에 編纂한 懷中曆(十卷)과 掌中曆의 두冊에 依하여 鎌倉時代의 어떤 사람이 모와 만든 것이다.

2) 二中曆에 對해서는 新村出의 研究가 있는데 여기의 表記는 新村 博士의 表記에 依한 것이다.

新村出：國語及び朝鮮語の 數詞について(東方言語史叢考) 參照

그리고 括弧내의 音聲記號는 筆者が 日語의 古音을 考慮하면서 參考로 불린 것이다.

(高麗語)	一	二	三	四	五	六	七
	カヲナ	ツフリ	トキ	サキ	エス	ハス	タリクニ
	八	九	十				
	チリクニ	エタリ	エツ○				

(貴賀國語)	一	二	三	四	五	六
	カタナ	トフ	トヒ	ソヒ	エス	ハソ
	七	八	九	十		
	サソ, サ, ソ	チリクニ	エタリ	エ○		

上掲 貴賀國語는 어떤 地方을 말하든지 간에<sup>3)</sup> 二中曆의 高麗語와 同系統의 말임은 疑心 없다.

그런데, 鷄林類事의 數詞나 그 뒤의 國語 數詞와 比較해 보면 몇 개의 數詞 외에는 그 音形이나 語意가 맞지 않아 바르게 轉寫되었는지는 疑心이 되는 바로 誤寫, 畫入으로 보기로 했다.<sup>4)</sup>

그러나, 자세히 觀察해 보면 몇 가지 重要한 점이 發見된다.

첫째 一部 語彙의 對應例로 보아 麗語 數詞의 轉寫임은 틀림 없음을 確認할 수 있다.

	(鷄林類事)	(二中曆)	(鮮初語)
[一]	河屯	カタナ(katana)	호나
[二]	途字	ツフリ(tupuri)	둘

둘째, 鮮初語 語彙보다는 훨씬 古型의 語彙임도 또한 確認할 수 있다.

셋째, 가장 注目할 만한 事實은 語頭子音을 따로 考慮하면 鷄林類事나 그 以後의 國語 語彙形에 거의一致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數詞)	(鷄林類事)	(二中曆)	(鮮初語)
一	河屯	カタナ(katana) ①	호나
二	途字	ツフリ(tupuri) ② トフ(topu) ② トヒ(topi) ③	둘
三	洒(斯乃切)	{ サキ(sawi) ④ ソヒ(sopi) ④	세
四	迺	トキ(towi) ⑤	네

3) 小倉進平은 貴賀를 喜界 또는 鬼界로 그것이 高麗로 誤認된 것이라 했다.

小倉進平：增訂 朝鮮語學史 p.351

4) 小倉博士의 堆測이다. 上掲書 同頁.

五	打戌	$\begin{cases} ハス(Pasu) ⑥ \\ ハソ(paso) ⑥ \\ サソ(Saso) ⑥ \end{cases}$	다오
六	逸戌	エス(esu) ⑤	여수
七	一急	$\begin{cases} タリクニ(tarikuni) ⑦ \\ チリクニ(tirikuni) ⑧ \end{cases}$	널굽
八	逸答	エタリ(etari) ⑨	여률
九	雅好		아홉
十	噎	$\begin{cases} エツ〇(tu〇) ⑩ \\ ニ〇(e〇) ⑩ \end{cases}$	열

※ 二中曆 數詞 末尾의 圓圈內의 數字는 그 數意를 나타낸다.

數意를 떠난 音形面에서 頭子音을 제쳐두면 上揭 對比에서 보듯이 鷄林類事의 數詞나 그 後의 國語 數詞와 잘 對應되고 있음을 보는데, 이러한 事實은 그 數意를 떠나 音形上으로는 바르게 轉寫되었음을 들어낸다.

그러나, 語頭子音을 考慮하면 問題가 생긴다. 「トヰ」(towi)가 「네」와 對應됨은 알타이 諸語間의 比較考察에서 그 可能性이 認定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것은 一考를 要한다.

(數詞)	(鷄林類事)	(二中曆)	(鮮初語)
五	打戌	$\begin{cases} ハス(pasu) ⑥ \\ ハソ(paso) ⑥ \\ サソ(saso) ⑦ \end{cases}$	다오
七	一急	$\begin{cases} タリクニ(tarikuni) ⑦ \\ チリクニ(tirikuni) ⑧ \end{cases}$	널굽

以上의 語彙들은 鷄林類事의 數詞나 그 後의 國語 數詞와는 다른 語彙들이 다. 그러나, 알타이 諸語의 數詞와 比較해 보면 다음 같은 對應이 이루어질 수 알수 있다.

ハス(pasu) : biš ⑤ (古土), beč ⑤ (オغل)

サソ(saso) : Sunja ⑤, SuSai ⑤ (満州語)

タリクニ(tarikuni) : doloran ⑦ (蒙古文語)

5) 國語 數詞의 알타이 諸語間의 比較는 Ramstedt, 李基文, 朴恩用, 崔確根, 姜吉云 等 많은 學者들이 言及하고 있다.

朴恩用 : 韓國語와 滿州語의 比較研究(曉大, 研究論文集 第 14·15卷)

姜吉云 : 三韓語·新羅語는 土其其語族에 屬한다. 一數詞·季節語·方位語의 體系의 比較一(국어 국문학회, 국어 국문학 68·69) 參照

알타이 諸語의 數詞는 이미 널리 紹介되었으므로 本稿에는 出典은 밝히지 않는다

## チリクニ(tirikuni) : zirruran ⑥ (蒙古文語)

傳統國語에서 없는 그려한 語彙들이 麗代에 果然 存在하였겠느냐는 것은 선뜻 納得이 가지 않지만 歷史的 事情을 考慮하면 語形이 다른 同意의 語彙나 낯선 語彙들이 使用될 可能性은 같다. 新羅의 統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南方系民族과 北方系民族이 統一되었는데 羅代의 統一期와 麗初를 通하여 南北의 交流混居가 크게 이루어진 것만은 事實이다. 이에 따라 南北系의 言語도 混用하기에 이르르고 南方系言語에 北方系言語가 侵透되기도 하겠다.

그러나, 留意할 점은 이들 알타이 諸語의 語形이 그대로 借入된 것과 아니고 同意의 南方系數詞의 母音形에 同化되고 있는 事實이다. 이러한 事實은 먼저 混用이 있었고 그 뒤에 勢力を 잡고 있는 南方系言語에 母音이 同化되고 난 뒤에 借入된 것으로 생각되어 「タリクニ, チリクニ」의 경우만은 母音이 同化되고 있지 않아 再考가 要할 듯하나 그것은 別稿로 미룬다.

다음으로, 數意面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數意面에서는 두어 개를 빼고 나면 鑄林類事의 數詞나 그 以後의 國語 數詞와 전혀 對應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數意面도 자세히 살펴보면 두어 가지 중요한 점이 눈에 띈다. 音形에 對해 數意가 틀려진 重要한 現象이 數順倒置와 意味分割의 두 경우로 되어 있는 점이다.

(高麗語)	一 カヲナ	二 ツフリ	三 トキ	四 サキ	五 エス	六 ハス
			○	○	○	○
七 タリクニ	八 チリクニ	九 エタリ	十 エツ	○		
	○	○				
(貴賀國語)	一 カタナ	二 (トフ)	三 (トビ)	四 ソヒ	五 エス	六 (ハソ)
		○		○	○	○
七 サソ)	八 チリクニ	九 エタリ	十 エツ			
X	○	○				

\* ( )를 한 것은 括弧內의 두 數가 意味分割을 한 것을 보이고 밑줄을 친 것은 數意가 倒置된 것을 보이는 것으로 줄표 위에 ○표를 한 것은 줄표를 친 짝이 되는 數에서 倒置가 된것이며 X표를 한 것은 줄표로 짝을 지운 數에서 倒置된 것이 아님을 보인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二中曆이 그 音形에 對한 數意變化가 不規則한 것이 아니고 거의 모두가 數順倒置와 意味分割로 解釋될 수 있다는 事實은

이들 數意의 變化가 單純한 誤寫에 依한 것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麗語의 一分派에서 孤立的으로 數意變化를 치른 것으로 理解된다.

그렇게 보면 數順倒置와 意味分割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先行過程이 解明되어야 하겠다. 이 先行過程이란 數順倒置에 있어서 倒置되는 數詞 끼리 繁密한 짹을 形成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 數詞가 짹이 되어 使用되는 경우가 一般化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先行過程의 存在는 國語數詞의 複合數詞에서 確認된다.

한두(二三)	넷널곱(五七)
두어(二三)	
서너(三四)	
너댓(四五)	
대여섯(五六)	
일이 여덟(七八)	

이러한 複合數詞는 鮮初語에 그런 例를 볼 수 있으며 그것이 麗語에 이드 存在하였을 것은 疑心 없다.

### 두서(二三)

種種方便으로 두서번 니르시니(釋譜 6:6)

시문 두서햇자히(月釋 1:6)

두서번 땅바기 문지샤로 : 再三摩頭(法華 6:21)

열아홉(八九)

네 아드리 나히 열아홉만 하면(月釋 8:97)

새 지른 열아홉낫 세로다 : 茅齋八九據(杜解 20:9)

세다오(三五)

호다가 세다오시어나 호다가 百千이어나 : 若三五若百千(圓覺下二之一, 61)

이러한 複合數詞의 數意倒置는 다음 같은 過程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

サキ(三), トキ(四)→サキトキ(三, 三)→トキサキ(三, 四)→トキ(三), サキ(四)

또 複合數詞는 單意化되면 複合要素인 單數詞를 각각 同意化시키게 되겠다.

トフ(二), サキ(三)→トフサキ(二, 三)→トフ(二, 三), サキ(二, 三)→トフ(二), トフ(三)

곧 「トフサキ」(二, 三)의 複合數詞는 그 複合數意의 固定化에 따라 「トフ」나 「サキ」가 分離되어도 각각 「二, 三」의 數意 가진 數詞로 存立되어 「ト

フ」(二, 三)와 「サキ」(二, 三)의 同意語가 並存하게 되겠고 그런 경우 同意語衝突에 依하여 하나는 廢棄하게 되겠으며 그런 뒤 單數詞形인 複意數詞는 그 複合數意가 單意로 分離 使用될 必要性이 생기면 語形上으로 分離될 수 있으므로 같은 語形으로 兩意로 使用하게 되어 同意語가 形成되겠다.

이런 過程의 끝에 同意語가 發生하고 同意語衝突의 治療에 依해 두 語形이 發生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トフ(三), トフ(三)→トフ(二), トヒ(三)

萬若 이러한 變化를 假定하면 二中曆 高麗語의 경우는 다음 같은 變化過程을 겪은 것으로 推定된다.

(原狀推定)

カタナ(一) シフリ(二) サキ(三) トキ(四) ハス(五) エス(六) タリクニ(七) エタリ(八) チリクニ(九) エツ○(十)

(複合化)

カタナ(一) シフリ(二) サキトキ(三, 四) ハスエス(五, 六) タリクニエタリ(七, 八) エタリチリクニ(八, 九) エツ○(十)

(倒置)

カタナ(一) シフリ(二) トキサキ(三, 四) エスハス(五, 六) エタリタリクニ(七, 八) チリクニエタリ(八, 九) エツ○(十)

(分離)

カタナ(一) シフリ(二) トキ(三) サキ(四) エス(五) ハス(六) タリクニ(七) チリクニ(八) エタリ(九) エツ○(十)

意味分割

이런 過程에서 複合化의 경우 그 複合數詞가 一般化되므로서 實上 十까지의 數詞로서 七個의 數詞가 쓰인 時期가 推定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十個의 數觀念이 없어졌기보다 三부터 九까지의 數詞는 單數詞를 버리고 複合數詞만으로 사용한 慣習이 存在한 것이 推定된다. 그런 다음에 十까지의 單數詞를 다시 回復한 것으로 解釋된다.

이러한 變化를 假定하는 데는 다음 같은 問題點이 있다.

① 複合數詞를 使用하더라도 單數詞를 混用하는 것이 一般的인데 單數詞를 廢棄할 수 있을까?

② 複合數詞만으로 慣用하였다면 單數詞를 回復한 要因은 무엇인가?

③ 이렇게 變化가 存在하였다면 왜 어느 方言에서든지 그 殘存形이 畏지 않는 것인가?<sup>6</sup>

이러한 점을 證明하는 記錄은 볼 수 없으나 다음 같은 可能性을 들 수 있다.

①에 對해서는 文化가 낮고 經濟活動이 弱한 孤立된 地域을 假定하면 그 可能性이 認定된다. 複合數詞의 使用은 打算的이고 利害 關係를 重視하는 交易關係에서는 使用될 수 없는 것으로 經濟活動이 弱한 地域에서는 能히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도 學問的인 數值나 嚴格한 商行爲에서는 쓰이지 못하고 經濟的 交易關係가 아닌 경우에라야 흔히 쓰인다.

두어 개 주개.

서너 개 가져 가개

②에 對해서는 이러한 未開社會의 經濟的 向上過程에서 數值의 嚴格化를 생각할 수 있다.

③에 對해서는 이러한 未開 孤立된 社會의 開放에 따른 높은 文化의 壓倒와 麗代와 現在라는 時間의 距離로써 그 可能性을 認定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少數人の 未開社會가 開放되면 侵透된 文化社會의 言語에 壓倒되어 그들의 言語가 改新되기 마련이다. 특히 거의 同一한 言語를 使用하는 社會끼리는 排他性이 적으므로 그 可能性은 더욱 같다. 現代에 있어서 標準語의 普及이 그런 例가 될 것이다. 그리고 時間의 距離에 따른 古語形의 消滅은 麗代數詞에서도 그런 例를 볼 수 있다.

(龐語)

河屯(一)

途李(二)

(現代全國方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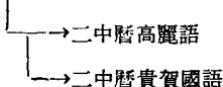
하나(一)

둘(二)

當代에 採錄되지 않는 以上 一段 改新되어 버린 後는 現代에 殘存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

以上과 같은 見解에 依하여 二中曆의 高麗語와 貴賀國語는 麗代에 孤立된 地域에서 發達한 方言을 採錄한 것으로 보겠다.

羅語 → 麗代開城語 → 朝鮮語 → 現代語



6) 다음 例는 그런 殘存形으로 봄직하다.

八莒縣…本新羅八居縣 一云仁里 景德王改名八里…高麗後稱八居 後居轉而舊…別號七谷(勝覽卷二十八, 星州)

「八居」와 「七谷」은 같은 말의 다른 表記겠는데, 이는 소리는 같으나 그 意味가 「八」에서 「七」로 바뀐 例로 보겠다.

### III. 二中曆數詞의 轉寫音

上述한 바와 같이 國語에서 一段 形成된 數詞가 方言으로 分立한 以後 獨自의인 發達을 했고 또 그것이 複合化에 依한 數順倒置, 意味分割에 依한 變化라고 보는 경우, 鶴林類事와 比較하고 그 變化를 考慮하면 다음처럼 그 變態樣狀을 確認할 수 있다.

#### ① 同音語治療에 依한 變態

(貴賀國語) ハソ⑥ サソ⑦

頭子音의 變化인데, 이것은 統一期에 混用된 外來語의 頭子音이 다른 類意語로 代置된 것으로 보인다

(貴賀國語) トフ② トヒ③

이것은 同音語衝突에 依한 母音의 變化로 보이며,

途字②(鶴林類事)

ツフリ②(二中曆高麗語)

등으로 보아 「トヒ」(topi)가 變態로 보인다.

#### ② 子音添加

(貴賀國語) ソヒ④

「ソヒ」(sopi)는 二中曆高麗語의 「サキ」(sawi)와 對應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例와 比較해 보면 子音이 添加되었음을 알 수 있다.

洒③(鶴林類事)

セ③(鮮初語)

이것은 「soi→sowi→sopi」로 脣音子音化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것은 「サキ」에 對한 變態라고 본다.

#### ③ 略形

(貴賀國語) トフ②

「トフ」②는 다음 例로 보아 「トフリ」의 略形으로 보인다.

ツフリ ②高麗語

途字 ②鶴林類事

따라서, 「ツフリ」②에 對應하는 變態로 보겠다

(貴賀國語) サ⑦ ソ⑦

이것은 貴賀國語의 同項에 「サソ」가 있음을 보면 「サソ」의 略形임이 分明하다.

サソ ⑦貴賀國語

打戌 ⑤鶴林類事

다수 ⑤鮮初語

#### ④ 誤寫

(高麗語) カヲナ

貴賀國語나 鶴林類事와 比較해 보면 誤寫로 보인다.

カタナ①(貴賀國語)

河屯①(鶴林類事)

#### ⑤ 失字

(高麗語) エツ○⑩

(貴賀國語) エ○⑩

高麗語나 貴賀國語에서 각각 轉寫中에 不分明하여 現在로서는 失字된 것 인데, 貴賀國語의 失字는 다른 轉寫例와 比較해 보면 그 失字가 「ツ」임이 分明하다.

エツ○⑩(高麗語)

噎⑩(鶴林類事)

열⑩(鮮初語)

高麗語「エツ○」⑪의 語末音 失字는 鶴林類事나 그 뒤의 國語 語形으로 봐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國語數詞의 語源에 對한 筆者 나름의 見解에 立脚하여 「サ」의 失字로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具體的인 論議는 別稿로 미룬다.

以上과 같은 變態를 考慮해서 母音이 서로 가까운 語彙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數詞)	(鶴林類事)	(鮮初語)	(二中曆)
一	河屯	호나⑦	カタナ①
二	途李	둘⑧	{ツフリ② トフ②}

7) 「호나」는 「호나」의 音變임을 보인다. 곧 「호나→호나→호나」

8) 慶尚道方言의 「두불일」(再事), 「두불실」(二重糸)에서 「두불」(二)의 古形을 짐작할 수 있다

觀卜二(二) 朝鮮館譯語

三	洒	세	{ サヰ④ ソヒ④
四	迺	네	{ トヰ③ トヒ③
五	打戌	다爻	{ ハス⑥ ハソ⑥ サソ⑦
六	逸成	여爻	エス⑤
七	一急	닐급	チリクニ⑧
八	逸答	여답	エタリ⑨
九	雅好	아홉	—
十	壹	열	エツ⑩

以上의 對應例에서 鮮初語와 轉寫된 日本字音과의 音韻對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國音)	(日本音)
ト(a)	ハ, サ, ナ (a)
・(ə)	カ, タ, ソ, ス (a, o, u)
ㅓ(ə)	サ, ソ, ト (a, o)
ㅑ(iə)	エ, (e)
ㅜ(u)	ク, ト (u, o)
ㅡ(i)	フ, ス (u)
ㅣ(i)	チ, ヒ, キ (i, wi)

「ヰ」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制約을 갖고 있음을 본다.

i→wi/母音字

이것은 이 音을 가진 單語가 單純한 複母音이 아니라 二音節의 單語로서開放連接이 있을 것을 示唆한다. 곧 「サヰ, トヰ」는 「세, 네」가 아니고 「서이, 더이」였을 것이다. 慶尚道方言에 「세, 네」를 「sə:hi, nə:hi」로 發音하고 있음이 比較된다.

以上의 日本音과의 對應을 살펴보면 朝鮮時代의 對應關係와 같음을 볼 수 있다. 國語의 「・ㅓㅡ」등에 正確히 對應하는 日本音은 없었는 것 같고 또 日本音 「エ」에 對應하는 國音은 없었는 것 같다.

日本音 e가 鮮代語 「여」와 對應되었음은 일찍이 認識되어 있었고 日語對譯에서 그 實例를 볼 수 있다. 日本人 小田幾五郎은 일찍이 「象胥紀聞拾遺」에서 한글에는 두 音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겨」는 「キョウ」, 「ヶ」,

「여」는 「ヨウ」, 「エ」, 「べ」는 「ヒヨウ」, 「ヘ」등의例를 들고 있다.<sup>9)</sup>

捷解新話의譯音에서는 日音「エ」는 「여」 또는 「예」로對譯되고 있다. 이  
러한國音「여」와 日音「エ」의對應關係는 二中唇의譯音關係에서도 그대로  
지켜졌고 다른 音도 鮮代對應音과 같은傾向을 보이고 있어 麗代의 國音  
이 鮮代와 같았음을 보이고 있다.

#### IV. 鶴林類事 數詞의 轉寫音

鶴林類事의解續에는 여러가지問題點을 갖고 있다. 麗語가 어떤했는지  
특히 그 音韻이 어떤했는지는 아직未詳이며 麗語를 轉寫한 漢字의 音價가  
어떤했는지는 아직正確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現在까지 여러面의  
考證로써 그 윤곽은 잡을 수 있다. 鮮初語와의比較에서 數詞의 대부분이  
鮮初語形과 비슷한 것임을 認定할 수 있고 鶴林類事의 漢音은 當代의 皇極  
經世書의 音이나當時의 北音과 가까운 音일 것이 推測되어 周祖謨가 推定한  
宋代汴洛音으로<sup>10)</sup>對比하여 살펴보면 그것과 매우 가까운 音임이 쉽게  
理된다. 그래서, 宋代汴洛音을 基準으로 鶴林類事의 漢字音이나 麗音의 性  
格을對比考證해 보기로 한다.

「ト」音을 가진語彙를 가려서 宋音과 麗語와의對應關係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語彙는 鮮初語와一致하여 解讀이 分明한 것을 選擇하여 右便에  
鮮初語形으로推定하되 麗語에는語形이 다소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은筆者  
의見解대로推定하여 \*표를 친다.

그리고, 漢字音은括弧 밖은 宋代汴洛音이고括弧 안은開封音이다. 鶴  
林類事의漢字音中汴洛音과 다소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은筆者의見解대로  
推定하되 \*表를 불인다.

打成(五)	다쏘
雅好(九)	아홉
麻忍(四十)	마순
漢字秘(祖父)	한아비
漢捺(天)	하늘
阿參(且)	아츰
南記(木)	남기

9) 小倉進平：增訂朝鮮語學史 p.104 參照。

10) 周祖謨：宋代汴洛語音考（輔仁學志第十二卷）參照。

鉢子南(松)	잣나도
暗(雌)	암
渴翅(皮)	잦
家稀(犬)	가히
了加(父呼其子)	아가
了兒(弟)	아수
沙會(自稱其夫)	사회
烏囉(來)	오라
都囉(凡呼取物)	도라
打 ta(ta)	雅 ra(a)
麻 ma(ma)	漢 xan(xan)
阿 a(ra)	南 nam(nan)
鮮 tsa(tsa)	暗 am(ram)
渴 ka(kw)	家 ka(kw)
Y a(a)	沙 sa(sa)
囉 la(lw)	加 k—(ka)

國音「卜」(a)음은 宋音「a」음과 그대로一致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麗語「卜」음과 宋音을 比較해 보면 그 對應關係는 다음과 같다.

嫩耻(雪下)	눈 디
耻(凡皆下)	디
哭利弓幾(雁)	*그려기
漢了秘(祖)	한아비
沒涕里(染)	물드
桺至(桺)	엽사
養支(齒刷)	양지
姑記(魚肉皆)	고기
耻 ts 'i(ts 'i)	幾 ki(ki)
稀 Xi(Xi)	秘 fi(fi)
里 li(il)	至 tsi(tsi)
支 tsi(tsi)	記 ki(ki)
移 i(i)	

以上으로 國音「丨」(i)음은 宋音「i」음과 그대로 잘一致하고 있음을 보겠다.

麗語「丁」음과 宋音을 比較해 보면 그 對應關係는 다음과 같다.

途李 (二)	*두를
嫩 (雪)	눈
烏沒 (井)	우물
嫩 (眼)	눈
土捲 (頭巾)	두건
途 t'u(t'u)	嫩 n—(nuən)
烏 u(u)	土 t'u(t'u)

麗語「T」音은 거의 宋音「u」음과一致하고一部「uən」음과對應하는 것이 있으나 「uən」는 國語母音처럼 卓音으로 實現되면 核母의 中舌音「e」는 合口介母「u」의 影響을 입어 多少 高母音化하고 後舌化하겠으므로 「u」음에 가깝게 實現되겠다. 그러므로, 麗語「T」(u)音은 宋音「u」음과一致한 것으로解釋된다.

麗語「u」음과 宋音을 比較해 보면 그對應關係는 다음과 같다.

邪好(九)	아홉
醴(百)	온
母魯(後日)	모의
鳥粽(今日)	오늘
突(猪)	돌
孫(客)	손
故作(倡人)	고자
門(身)	몸
毛(苧)	모시
毛施背(苧布)	모시의
遜(手)	손
索(射)	소
乞鋪(讀書)	글 보
都囉(凡乎取物皆)	도라
那(索)	노
那奔(高)	노운
那論(黃)	노론
好 x—(xau)	醴 yən(yən)
母 m—(mou)	突 t—(tu)
孫 s—suən)	故 ku(ku)
鳥 u(u)	門 m—(muən)

遜 s—(suən)	毛 m—(mau)
索 Suo(So)	鋪 p'u(p'u)
都 tu(tu)	那 na(nw)

「那」音에 對해서는 一考가 要한다. 「那」字는 鷄林類事에서 모두가 國音 「노」音을 轉寫하고 있다.

那(索)	노
那奔(高)	노奔
那論(黃)	노론

이 點으로 來說서 鷄林類事의 「那」는 그 韻母가 「o」音이 아니었을까 하는 疑問도 생기나<sup>11)</sup>, 다음 같은 諸點은 이를 否定한다.

첫째, 朝鮮館譯語에서도 같은 語彙 「高」의 轉寫에 「那」字로 轉寫하고 있으나 그 「那」字는 下掲例처럼 主로 「나」(na)를 轉寫하는 데 쓰인 字로 그 韵母는 「a」로 보겠으며 「o」로 볼수는 없다.

(a) 害那格大(日出)	하나거다.
把那哈大(分田)	발 눈호다
雜那憂大(出城)	잣 나가다
呆論臥那大(夏至)	녀름 오나다
解自臥那大(冬至)	겨울 오나다
那吉大(畫長)	낫 길다
那莫(木)	나모
格悶那莫(烏木)	거문나모
刮世大臥那刺(摘果)	파실 빠오나다
臥那刺(來)	오나라
那落(鬚)	나릇
那左把(飯飯)	나조밥
哈那(一)	하나
那答(申)	납폐
(b) 磨那大(山高)	고 높다
𠂇那大(牆高)	닫 높다
我稟那憂敢大(氷化)	어름 노가간다
(c) 把刺那大(海濶)	바른 넓다

11) 李基文：國語史概說 p. 76参照

李博士는 「那」를 「노」의 轉寫로 보고 있다.

文璣奎：朝鮮館譯語研究

姜信沆：「朝鮮館譯語」研究 등 參照

둘째, 「o」음으로 쓰인 字가 땐 음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어, 「o」音 轉寫에 쓰였다고 반드시 「o」음으로 볼 수 없다.

[ə] 烏餘(今日)	오늘
烏囉(來)	오라
烏不實(無)	업실
[u] 烏沒(井)	우물

셋째, 鷄林類事의 漢字音과 가까운 音인 宋代汴洛音의 體係上으로 보아 「o」音일 수 없다.

만약 「노」(no)음에서만 「na」로 轉寫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이라면 그 音聲的原因은 「나, 너, 노, 누, 니」등이 잘 發音되었던 時節에 있어서는 國語 「ㄴ」(n)음이 現代國語에서보다 舌面을 낮추고 舌尖로서 調音한 듯한데<sup>12)</sup> 그러한 調音作用 때문에 뒷 모음이 다소 底舌化된 터 原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以上 「느」(o)音 轉寫에 使用된 漢字音의 母音(汴洛音의 韻母가 不明한 것은 開封音으로 代置함)을 類別하면 다음과 같다.

- (A) au, ou, ue
- (B) u, ue, ye
- (c) a

上揭 (A), (B) 集團의 音은 單音으로 實現된다면 (A)集團의 音「au, ou, ue」등은 「o」音에 가깝게 實現되겠고 (B)集團의 音「u, ue, ye」등은 「u」음에 가깝게 實現되겠다. 그런데, 國語 「느」(o)音의 轉寫에 多樣한 宋音을 使用한 理由는 適合한 對應音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適合한 對應音이 있었다면 그 上의 다른 音으로 暗昧한 轉寫를 할 理가 없다.

周祖謨가 推定한 宋代 北音(汴洛音)의 母音은 다음과 같다.<sup>13)</sup>

(陰聲類)		a i ai au ou ua ui uei u uai (uaau)
<sup>2</sup>		
<sup>3</sup>		
ia	iau iou	y

12) 許雄 博士는 鮮初에 「사서소수자저조류차저초류」등의 「느」와 「사서소수자저조주차저초주」등의 「ㄴ」가 辨別的으로 作用한 事實을 들어 鮮初의 「스스ㅊ」등은 그 發音이 現代와 差 달지 않을까 하는 推理가 可能하다고 했다.

許雄: 國語音韻學(改稿新版). p.353 參照

筆者는 鮮初語의 「스스ㅊ」은 現代의 發音과 달랐다고 보며 「ㄴ」도 마찬가지로 달랐다고 본다.

13) 周祖謨: 前揭書【參照】

(陽聲類)	ang aŋg an ən am uang iŋg iɛŋg ian in iam im	uɛŋg ung uan uɛn yɛŋg yung yan yɛn
(入聲類)	a ə ei _ ɔ ʃ ia iɛ ə iap ip ua uə uei u ɔ (uap) (iup) ya yɛ y yɔ	ap

이 宋代 母音에는 鮮初國語에 存在한 「-t(o), -t(i), -t(ə)」음이 없고 入聲의 韻尾子音이 實現되는 경우로 보면 「-t(ə)」음, e음의 單獨音이 없다는 것 이 注目된다.

이러한 宋音의 母音에 立脚해서 보면 麗音「-t」(o)음의 轉寫에 o나 u음에 가까운 音이나 a음까지 使用하였다는 것은 宋音에 없는 o음의 表記에서 이 루어진 苦衷에서 빚어진 것이겠다. 圓脣後舌高母音이나 a母音으로 轉寫되었다는 것은 麗代의 o음이 鮮代의 o음과 같았음을 理解케 한다. a음으로 까지 轉寫되었다는 것은 舌位가 u母音만큼 높지 않았음을 端的으로 나타내는 것 이다.

麗語「-t」音과 宋音의 對應關係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洒(乃切三) (세)	세
迺(四)	네
率(霜)	서리
烏不實(無)	업실
疎步(眉)	(눈)썹
土捲(頭巾)	두건
欺臨(行)	거름
酒 sai (sai)	乃 n—(nai)
迺 nai (nai)	率 sə (si)
烏 u (u)	疎 sy (sy)
捲 k—(kyan)	欺 k'i (k'i)

麗語「-t」(ə)음에 對하 宋音의 對應은 「a, ə, u, y, ya, i」 등 多樣하게 實現되고 있는데, 그 理由는 宋音에는 「ə」 單獨音이 없고, 있는 경우는 韵尾와 共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겠다. 그러므로, 韵尾가 없는 漢字音으로 轉寫할 때는 近似音으로 轉寫하겠고 韵尾를 가진 漢字音으로 轉寫하는 경우에는 그 韵尾의 制約에 따라, 「ə」가 그런 韵尾와 共存하는 漢字音이 있을 때

는 바르게 轉寫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近似音으로 轉寫할 수 밖에 없다. 宋音에서 「ə」음의 韻尾와의 共存 如否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n韻	ən
—ng韻	əŋg
—t韻	ə
—k韻	ə
—p韻	(없음)
—i韻	(없음)

「—t, —k韻」의 「ə」의 경우도 鶴林類事 漢字로서는 單獨音이 아니다. 韵尾子音이 實現되는 경우로 轉寫되었기 때문에 麗語의 「—r, —k」子音을 가지는 音節과 對應되는 것이다. 이러한 制約에 따른 苦衷은 上揭例에서도 보인다. 「—t韻」은 「sə(率)」：서리(霜)」로 「ə」음이 바로 對應되고 있다. 그러나, 「—p韻」에서는 「ə」核母가 없기 때문에 「sypu(疎步)」：설(眉)」으로 無尾韻의 漢字를 쓰고 近似音으로 重字로 나타내었다.

麗語 「ㅋ」음에 對한 宋音의 對應關係는 다음과 같다.

逸戍(元)	여戍
逸答(八)	*여 둑 <sup>14)</sup>
噎(十)	열
逸舜(六十)	여舜
逸頓(八十)	여顿
折(七吉切)(箸)	*결 <sup>5)</sup>
頗希(筭)	빈허
皮盧(覲)	벼로
批草(蛋)	벼록
實漢(三十)	歇호
逸 iə(i)	噎 ia(iə)
折 tsia(tsiə)	吉 kiə(ki)
實 siə(si)	希 X—(ši)

14) 「八」의 鮮初語는 「여 둑」으로 보인다.

새로 스물 여 둑字를 맹가노니 : 新製二十八字(訓民)

여 둑서리 : 八歲(內訓 2:6)

그러나, 二中曆에 「エタリ」(etari) 鶴林類事에 「逸答」(iəta)로 轉寫되었으므로 高麗語는 「여 둑」이겠다.

15) 「箸」은 鮮初 以來 「져」이나 麗語로는 그 轉寫音으로 보아 「절」로 보인다.

李基文 : 鶴林類事의 一考察(一石李熙昇先生頤壽念論叢) 參照.

皮 fi(fi) 批<sup>16)</sup> p 'ia(p 'ie)

語語 「부」(jə)에 對한 宋音의 對應은 「iə, ia, i」 등으로 對應되고 있다. 여기서도 「나」(ə)音의 對應例에서 보는 것처럼 「-t」의 舌內入聲字에서는 「ə」音으로 바로 對應하고 있음을 본다.

여	逸(iə)
결(一 열)	吉(—iə)
설	實(siə)

그런데, 한 가지 注目되는 점은 國語에서 「一迅」末音을 가진 音節의 轉寫는 「ia」로 轉寫되기도 한 점이다.<sup>17)</sup>

(A) 「一迅」末音이 없는 音節

여 iə(逸)

(B) 「一迅」末音이 있는 音節

열	ia(例)
결	tsia(折)

그것은 「一迅」末音을 發音하는 경우 혀가 앞쪽으로 낮게 밀려 나가는데 그러한 調音에 對한 餘音 印象 때문인 것으로 보겠다.

麗音 「一」에 對한 音宋의 對應關係를 보면 다음과 같다.

泥不(被)	니불
沒(水)	불
李南木(柴)	불나모
沒涕里(染)	불드리
質姑(斐)	죽
乞鋪(讀書)	글 보
逸戍(戍)	여戍
不 fu(fu)	沒 m—(mu)
李 p—(pu)	涕 t 'ui(t 'ui)
質 tsə(tsi)	乞 k '—(tsiə)
戍 syə(sy)	

16) 「批字」는 集韻, 韻會에 「蒲結切」, 正韻에 「避列切」의 又音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音으로 轉寫한 것 같다.

17) 「批勒」(벼룩)은 「벼」 音節 自體만 보면 「一迅」末音이 없는 경우이나 「벼룩」(pjərok)의 두 音節이 閉鎖連接으로 發音되는 경우는 「迅」音이 이어 發音되므로 [pjər—]과 같은 音聲實現을 하겠다.

麗音 「一」(i)에 對한 宋音의 對應은 「u, ui, ə, iə, yə」등 多樣하나 「u」로 對應되는 것이 많다.

麗音 「・」음에 對한 宋音의 對應關係를 보면 다음과 같다.

河屯(一)	*호屯
打戌(五)	다오
雅順[訓](九十)	아호
阿慘(旦)	아총
癡忍(四十)	마순
漢春(天)	하늘
烏捺(今日)	오늘
板捺(針)	바늘
捺翅(面)	느치
末(馬)	말
姐(月)	둘
了姐	아둘
李攢(風)	이름
那奔(高)	노운
那論(黃)	노론
啄[達](鷄)	啄
河 ta(ta)	順 syən(syən)
訓 xyən(xəyn)	末 mua(muo)
姐 ta(ta)	李 p—(pu)
戍 syə(sy)	慘 tsam(tsam)
兒 *zi(zì)	攢 lam(lan)
捺 na(na)	忍 zən(zin)
奔 p—(puən)	啄 ts 'u(ts 'u)
達 ta(tu)	論 l—(luən)

周祖謀가 推定한 宋代汴洛音에는 日母의 平, 去, 入聲 聲母는 「ň」, 上聲 聲母는 「z」로 되어 「兒」의 聲母는 「ň」로 보겠으나, 鶴林類事에서 「兒」는 아수」(弟)의 「수」와 對應된 것으로 그 聲母는 「z」이겠다. 「兒」(平聲)은 汴洛音에서 口蓋音인 ň로推定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설사 z음일지라도 그 口蓋性의 傾向에 따라捲舌化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좋겠으므로 z가 아닌 z로 推定하여 「精」組처럼 그 「支韻」의 韻母는 「z」로 보겠다. 1 논子音化하였다 하드라도 前齒槽：舌尖의 調音作用에서 舌面이 다소 낮아지므로 中

舌的 印象을 가져 國音「수」와 가까운 印象을 갖는다. 國語 傳承漢字音(宋代初 또는 그 以前의 音일 것임)이나 現代 官話 比較해 봐도 그럴 可能性은 짚다.

(傳承音)	(鷄林類事)	(官話)
兒	az(수)	*z <sup>2</sup> er

麗音「・」(a)에 對한 宋音의 對應은 「a, ə, ua, ye, ue, u, ɔ」등 多樣하다.

以上의 麗音對 宋音의 對應에 있어서 麗音「ㅏㅑ」音에 宋音 i음이 두루 對應되고 있는데, 前舌音 i가 이들 中舌音과 對應되는 것은 奇異한 現象이다. 麗音 中舌音을 轉寫한다는 立場에서 보면 納得이 잘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例가 흔하고 그 用例의 解讀(鮮初語와의 對應)이 分明한 터이므로 轉寫의 잘못이나 誤讀으로 넘길 수 없다. 그렇다면 宋代 漢字音에서 中舌音 轉寫에 알맞은 音聲資質을 가졌을 게 틀림없다.

그런데, 注目되는 점은 그들의 聲母가 脣牙喉音에 限定되고 있는 점이다 脣牙喉音의 聲母에 對해서 考慮해 보기로 한다.

ㅓ (ə)	欺 k'i (三)
ㅕ (jə)	希 xi (三)
皮	fi (三)

※ ( ) 안의 數字는 韻等을 가리킴.

陸志韋는 中舌音 再構에서 王靜如의 所說을 補完하여 脣牙喉音의 一等韻과 三等韻 聲母에 脣化音과 非脣化音을 假定하였다

(一. 三等聲母) k<sup>w</sup> k<sup>w'</sup> g<sup>w</sup> g<sup>w'</sup> p<sup>w</sup> p<sup>w'</sup> b<sup>w</sup> m

(二. 四等聲母) k k' g g' p p' b m

따라서, 脣化聲母 뒤의 介母는 非脣化聲母 뒤의 介母와 같을 수 없는 것으로, 非脣化聲母 뒤의 i는 分明한 聲母지만 脣化聲母 뒤의 介母는 音色을 쉽게 定할 수 없는 것으로서, i로 假定하지 마는 i에 比해서 넓고 조금 뒤에 나는 소리로 i와 ə의 中間에서 나는 소리거나 더 넓고 더 위에서 나는 소리 일 거라고 했다. 그리고, 切韻의 文脂祭眞仙宵侵鹽 八系統의 喉牙音은 다음처럼 推定할 수 있다고 했다.<sup>18)</sup>

三等韻	三等合	四等間	四等合
K <sup>w</sup> i	k <sup>w</sup> iw	ki	kiw

18) 陸志韋: 古音說略. p. p. 24~29 參照

이러한 見解를 採用하여 鷄林類事의 漢字音에 脣化聲母를 認定하면 다음 같은 解釋이 可能하다.

欺(三)	k'i	kʷ'i
希(三)	x!	xʷi
皮(三)	f'i	fʷi

이들 字는 그 韻母는 i이지만 脣化聲母 때문에 實際의 音聲實現은 그 母音이 I로 된다고 보겠다. 그리고 I의 音價를 陸志章가 推定한 대로 보면 國語의 「ㅓ」(ə)나 「ㅑ」(jə)에 가까운 音이다.

以上 考察한 麗語 母音에 對한 宋音의 對應을 一覽하면 다음과 같다.

(麗音)	(麗音)
ㅏ (a)	a
ㅣ (i)	i
ㅜ (u)	u, uə
ㅗ (o)	au, ou, uo, u, uə, yə, a
ㅓ (ə)	ə, y, u, a, ya, i
ㅑ (jə)	iə, ia, i
ㅡ (i)	u, ui, ə, iə, yə.
ㅗ (ə)	a, ua, ə, ə, yə, u

여기서 中舌母音에 두루 對應하여 對應上의 特徵이 희박한 i音을 빼고 考察한다. 그리고 國語의 單音을 轉寫한 것임을 考慮하여 實現될 單音을 다음처럼 推定한다.

au, ou, uo, ya, ua	→*o
uə, yə, ui	→u

\*표는 沐洛音에 없는 소리임을 표시한다.

麗音에 對한 宋音의 對應關係를 위처럼 單音化하여 再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ㅏ (a)	a
ㅣ (i)	i
ㅜ (u)	u
ㅗ (o)	*o, u, a
ㅓ (ə)	ə, y, u, *o
ㅑ (jə)	iə, ia
ㅡ (i)	u, ə, iə
ㅗ (ə)	a, ə, ə, u *o

## V. 結

앞에서 살펴 온 二中曆과 鷄林類事의 麗音에 對한 對應音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複雜性을 피하기 위하여 鷄林類事의 漢字音의 비슷한 音은 括弧로 묶기로 한다.

(麗音)	(二中曆)	(鷄林類事)
ㅏ (a)	a	a
ㅣ (i)	i(wi)	i
ㅜ (u)	u	u
ㅗ (o)		*o u a
ㅓ (ə)	a o	ə u(y) *
ㅑ (jə)	e	ie(iə)
ㅡ (i)	u	eu(e)
ㅓ (ə)	a o u a	(*e u o a)

위의 轉寫 모습을 보아 다음 같은 몇가지 事實을 알 수 있다.

첫째, 鷄林類事의 漢字音은 宋代 汎洛音과 매우 가까운 音임이 麗語와의對比에서 認定된다.

둘째, 麗音을 轉寫한 外國音의 對應으로 보아 麗語의 母音音價는 鮮初의母音音價와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宋音은 ə의 獨立音이 없었던 모양으로 麗語 「ㅗ」(o)의 轉寫에 o에 가깝거나 u에 가까운 重母音(介母 또는 韻尾母音을 가진 母音)을 主로 使用하고 있어 o母音 轉寫의 苦衷를 如實히 보여주고 있다. 그대신 漢音에는 制約를 받기는 하나 e母音이 있어 麗語 ㅓ母音이나 그와 가까운 母音의 轉寫에 使用되고 있다. 「ㅑ」(jə)음도 鮮代와同一한 音價를 가진 것을 들어낸다. ə음이 없는 日本語에서는 鮮代에서와 마찬가지로 e음으로 轉寫했으며 宋音은 ie, ia등으로 對應되고 있어 鮮初의 「ㅑ」(jə) 音價와 같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麗音 轉寫에 있어서 日本側과 宋側이 같은 音을 使用하고 있다. 日本音에서는 e, o음이 있는 代身에 ə음이 없고 宋音에서는 ə음이 있는 代身에 e, o음이 없어 近似音으로 轉寫한 差異뿐으로 그 目的 意識面이나 다른 音에 있어서는 完全히 一致한다 하겠다.